

엘레인 필립스 박사, 역사지리학 개론: 6 장 , 야생 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인 필립스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역사지리학 개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광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역, 바로 광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월터 브루게만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 점을 잘 포착한 매우 중요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 체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바로 그런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 광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북미, 그중에서도 북미 북부 지역 출신인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면 울창한 나무와 호수, 도로도 없고 꿈도 있는 곳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사진은 광야 지역의 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광활한지 주목해보세요.

여기서 길을 잃기 쉽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우리 중 몇몇은 실제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건조하고 황량한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야생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입니다.

이곳은 유대 광야의 일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광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관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 이는 대개 그들에게 시험의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해 광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시험의 은유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곳에서의 황야는 사막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러한 시련은 종종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량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은유적으로 작용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에서처럼, 구불구불한 절벽 등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길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능선으로 올라가기만 해도 완전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영적인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광활한 야생은 우리를 그곳에 있게 만들고, 그 안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합니다. 또한, 그곳은 매우 조용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소음과 방해 요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환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야생은 그런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즉, 여러 면에서 이 모든 것들, 특히 고요함이 어우러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광야는 하나뿐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 적어도 다섯 개의 서로 다른 광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모호한 장소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야는 전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마주하는 광야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파라오의 지배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나이 광야, 파란 광야, 그리고 그 외 여러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시나이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일종의 중간 지대인 셈입니다.

그곳은 전환의 장소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해 언급했던 것 중 하나는, 광야가 정화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예배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처음 파라오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흘 동안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 있던 외국인들 중 광야로 간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아시아인들도 예배 활동을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야는 야생 동물이 사는 곳이기도 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이나 신화 속에서 야생 동물은 종종 악마와 동일시되었기에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황야는 황량함의 상징이 된다. 사막은 모든 적대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가 드러난다 . 죽고 싶다면 사막이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성소와 제사장,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염소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께, 다른 한 마리는 아자셀에게 바쳐집니다.

그리고 아자셀은 아자셀의 상징인 염소를 통해 광야로 보내집니다. 아자셀이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염소가 광야로 보내진다는 것은 모든 죄를 그들이 시작한 곳, 즉 악령들이 출몰하는 나쁜 곳으로 가져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이 맥락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황무지에서 물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중동, 또는 중동 중심부의 지도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갈색 부분, 즉 베이지색 과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5~10cm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10~30cm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생존에 필요한 물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야생 지역 이 몇 군데 있는데 ,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 문명화된 지역의 변두리에 정착한 두 주요 조상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르세바 주변의 광야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시나이 산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도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일련의 광야 체험을 하게 됩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유다 광야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아, 죄송합니다. 한 명을 빼먹었네요.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광야, 특히 쿨란과 그 주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경험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광야의 경험들을 여러 면에서 구현해내셨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놀라운 예언적 자료들을 읽어보면, 황량한 광야의 회복은 이 황폐하고 메마르며 악령이 들끓는 곳이 완전히 바로잡힐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가 야생이라고 생각할 때, 시나이 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5~10c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지형도 아주 다양 하고 광활하죠.

'bir' 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랍어로 '우물' 을 뜻하는 ' bir' 입니다 . 따라서 물 공급원은 있지만, 이곳은 광활한 여러 황무지가 펼쳐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따라가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광야,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6장에 나옵니다. 그럼 어디쯤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이집트로 내려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벨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곳을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반유목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 타원형 모양 의 네게브 사막 지역 , 특히 우리가 서부 네게브 분지라고 부르는 곳에 정착할 것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핵심 이름은 게라르와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 이삭은 기존의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활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특히 아브라함이 서부 네게브 지역에 정착한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 의 대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족장 이야기와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그들이 언제 도착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금 당장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과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후 그 구절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부 네게브 지역의 게라르와 그 중앙에 있는 베르세바라는 이름에 주목해 주십시오. 문제는 항상 물입니다.

언제나 물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우량이 제한적이라면 우물을 통해 물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누가 우물을 소유하고, 누가 우물을 통제하는가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갈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입니다.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 아이를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로 인해 온갖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갈은 두 번이나 떠납니다. 첫 번째는 16장에서 그녀가 돌아오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다를 건너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창세기 21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문맥에서 브엘세바 사막, 또는 브엘세바 광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파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라르가 어떤 모습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이런 종류의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참고로 와디는 낮고 건조한, 일반적으로 물이 없는 강바닥을 말합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그 와디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계곡이나 와디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습니다. 그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게라르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골짜기 안의 골짜기가 아니라 게라르 골짜기 안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열었는데,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 놓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의 블레셋 신하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우물들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베에르는 '좋다'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말장난이 있는 거죠.

하지만 베르세바라는 이름은 이 모든 물 권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네게브의 몇 가지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네게브 고원입니다. 산등성이 와 절벽들이 보이시죠 ? 이 사진에는 초록빛 풀밭도 조금씩 보이네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빗물을 아껴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게브 사막의 토양은 일반적으로 가볍고 고운 바람에 날리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마치 탈크 파우더에 물을 뿌리면 흘러내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작은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면 물이 고여서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작물을 심고 키울 수 있죠 . 저 초록색 식물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석회질 암석 표면, 바람에 날린 고운 가루 형태의 토양.

이미 말씀드렸듯이, 연간 최대 강수량은 12인치에 불과하며, 동쪽 경계 지역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물 공급원은 와디 (건천)에 파놓은 우물이며, 이것이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곳 황무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짐작할 수 있도록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베르세바 바로 남쪽 지역인데, 회오리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람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고운 먼지를 기둥처럼 날려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라크에 파병됐던 학생이 있었는데, 점심으로 거의 항상 이런 음식을 먹었다며 회오리바람을 먹는 기분이 어떤지 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회오리바람이 있는 거죠. 성경 본문에서도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21장에서는 외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네게브 사막을 휩쓸고 지나가는 회오리바람처럼 사막에서 침략자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게브 사막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경험,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많은 경험의 토대가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 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갈대 바다를 건넌 곳이죠. 작은 흰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나이 산의 위치에 대한 설이 적어도 11가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모든 설을 다 살펴볼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장소인 시나이 산을 선호합니다. 화살이 떨어진 곳이 바로 시나이 산이니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 이방 민족과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은 시나이 반도 남쪽 3분의 1 지역으로 험준한 화강암 산맥이 펼쳐진 완전히 고립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과 일년을 보내셨습니다.

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일 년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갖춘 백성으로 빚어질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성전이 여기 아래라고 제안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나이 광야가 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의 오랜 경험을 뒤로하고, 그들은 파란 광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르네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진 광야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로다. 포도도 풍성하고 소출도 많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땅은 무섭습니다. 백성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진(Zin)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진의 황야 주변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황야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지만, 약속의 땅으로 곧장 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함도 없는 광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읽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예배 하도록 여러 번 명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여기에 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장, 7장, 8장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고요하고, 드넓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필요하고, 온갖 방해 요소, 이집트 문화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실 곳,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장소입니다. 이 시점, 그리고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세워진 곳인 시나이 산 지역을 상징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산타카타리나 주(St. Catherine's)는 모세의 산(Jebel Musa)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타카타리나에 대해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네요.

저기 있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은 6세기부터 있었던 곳이라 아주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곳에는 경전과 성상 등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 한 명이 시나이 산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담은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후, "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실제로 시나이 반도 남쪽의 험준한 화강암 산맥이었을 것이라는 사실, 또는 그러한 암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에즈 만, 아니, 수에즈 운하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풍경입니다. 여기가 수에즈 만의 일부죠. 이곳은 작은 오아시스 같지만, 나머지 지역은 꽤, 아니, 꽤 험준 해 보입니다 .

광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나이 산으로 향하는 내륙으로 들어서면 다시 한번 건조하고 황량하며 끝없이 펼쳐진, 다소 으스스한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시나이 산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다에서 구원받은 후 부엉이들이 부엉이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부터 19장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부엉이들을 시험하시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하나님께서 부엉이들을 시험하시고 징계하신 여러 사례들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릴 대조점을 기억해 두세요 . 가는 길에 모세는 물을 공급해 줍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쓴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 를 내려주시는 것과 더불어 , 안식일, 즉 일주일 중 하루는 쉴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식일을 보고 "아, 안 돼, 일을 그만둬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7일 내내 노예처럼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 중 하루의 휴식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포위 공격해 오는 원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승리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는 23, 25, 23, 즉 25, 2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겪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아말렉 족속은 매우 잔인해서 백성을 뒤에서 공격하여 약하고 무방비한 자들을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악랄한 짓을 저질렀지만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힘든 시기였고, 두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 게다가 그분은 그들의 인도자이십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타고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구름은 날씨가 더울 때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무지는 밤에는 춥지만 낮에는 매우 덥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은 아마도 좋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주었고, 낮의 구름기둥도 밤의 불기둥도 백성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그들을 당신의 소유,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성전, 아니, 장막을 세우시고, 나중에는 그 장막을 성소로 삼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라는 단어는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새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변 환경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라고 하실 이 성소도 구별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다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며, 성소는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성소는 구별된 곳입니다.

놀라운 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 서두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입니다. 따라서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지극히 단순화된 그림입니다. 이 커튼이 공간을 구분 짓고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막 천막의 여러 겹 아래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시험과 공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언약을 주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부족했고, 노골적으로 반역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벌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실함을 보여주는 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그들 자신의 시험,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불과 전염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는 1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21장에는 고라의 반역으로 그가 땅속에 묻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도 지진과 같은 원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다시 반역하며 더 많은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잠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 뱀 형상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 문제도 걱정했습니다. 모세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셨는데도 또다시 바위를 쳤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고통받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함축적인 의미에서 매우 강력하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죽음이 있고, 그곳에는 온갖 위협적인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즉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고, 모세는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활하고 무시무시한 사막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작아 보이지만 시나이 산에 서식하는 가장 치명적인 뱀 중 하나입니다. 전갈은 정말이지, 어떤 곳에서는 돌을 뒤집을 때마다 한 종류 이상의 전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마르고 물기 없는 그 땅이 비가 조금 내린 후 황폐해지고 갈라진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생명의 회복력입니다.

땅 표면이 말라붙은 후에도 잠시 동안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 들이 있습니다 .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시나이 광야 전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 그리고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나무도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대한 언급이 시나이 산의 맥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성막 건축 지침이 수 세기 후에 광야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맥락에 맞춰 제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나무 위로 뻗어 나가는 길이의 최소 두 배는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진은 진(Zin)의 황야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면 그 광활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로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황야에 비하면 제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카데쉬 바르네아입니다. 저기 오아시스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구가 많았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물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신 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 바로 두 구절 전에 말입니다.

들어 올린 것처럼, 요한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니고데모는 예수님 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재촉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 즉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성과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

자, 그럼 그 배경을 살펴보죠. 예술적인 표현인데요. 배경은 민수기 21장인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불뱀과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뿔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그건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는 높은 장대에 매달려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릴 때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 그들을 돌려보내다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가 영생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바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광야의 다윗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은 도망치고 있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 흥미롭게도 그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도망쳤지 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 근처 유대 광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또한 이곳은 다윗의 시편 여러 편의 배경으로도 등장합니다 .

다윗은 목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베들레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쪽을 내려다보는 동시에 동쪽 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 광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

그래서 다윗은 겨울과 봄에 양 떼를 몰고 광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곳은 아마도 사울을 피해 도망치기 전부터, 그리고 어쩌면 그 이후에도 그의 피난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63편.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간절히 당신을 찾겠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 육신은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다윗은 그 메마름과 황폐함 속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몸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위쪽은 오른쪽이나 서쪽으로 더 가면 베들레헴 지역에 이르는 곳입니다 . 여기는 사해로 이어지는 가파른 절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엔게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다윗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절벽 비탈에는 샘물이 솟아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암시하는 시편,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도다. (잔잔한 물가라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를 평온 하게 해주는 건 바로 물 입니다. 물은 내게 상쾌함을 줍니다 . 그리고 그 황무지에서 물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덥고 건조한 곳에서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보낸 사람에게 물은 더위를 식혀주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치다가 결국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엔게디는 샘이 있는 곳 중 하나인데, 히브리어로 '에인'은 샘을 뜻하므로, 그곳은 게디 샘, 즉 염소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석회암 지층을 가로지르는 깊고 깊은 협곡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벽이 매우 가파르게 솟아 있습니다.

양옆으로 작은 오솔길이 나 있고, 이쪽에도 작은 오솔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과 아브넬 등과 대면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한쪽에 서 있다가 반대편으로 건너간 장면이 바로 그 오솔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과 아브넬은 그들을 포위하려면 너무 넓은 지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니, 우리에게는 마침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61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혼란 과 긴장 , 두려움, 좌절 속에서 다윗 은 요새로 향합니다.

이제 그는 그 요새에서 이 바위 절벽들을 올려다보며 "나보다 높은 바위, 안전과 공급과 보호의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족장들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를 갈릴리 자료와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2세기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장들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진이 콤란의 대표적인 포스터나 엽서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4번 동굴입니다. 콤란에는 총 11개의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문서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콤란을 떠올릴 때, 보통 이런 모습이 생각나시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1개의 동굴, 특히 4번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든 간에 언약, 새 언약,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권, 특히 올바른 신권에 대해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독은 제사장 계보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의식적인 정화에 매우 깊이 관여했으며, 정결 의식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정결해지기 위해 몸을 물에 담그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요점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상황이 헬레니즘과 헬레니즘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 철학, 부, 그리고 국제적인 생활 방식이 유대교의 근간에 스며들었고, 이것이 성전과 제사장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이르러서는 제사장직 자체가 최고 입찰자에게 매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끔찍했고, 할 말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은 당시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기에, 언약을 제대로 갱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화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물러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콤란에 대해서는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콤란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할 예정이니, 여기서는 콤란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곳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여러모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성경 본문, 그 일부, 그리고 이사야서처럼 전체 사본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주제가 예수님 시대인 1세기에 존재했던 유대교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광야 공동체들은 예수님 시대에 매우 번성했습니다. 콤란은 서기 68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보다 두 세대 전, 혹은 한 세대 전에는 활기찬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콤란 공동체 자체는 아닐지라도, 누가복음 1장 끝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노령이었다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콤란 공동체, 혹은 광야의 공동체들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으니, 예루살렘의 제사장 중심 사회에 어느 정도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는 예루살렘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성장하는 것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야 지역의 또 다른 사진인데, 이곳이 얼마나 광활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후 이곳으로 가시도록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요단 강 주변 온 땅을 다니셨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유대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리라. 방금 보신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험준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길로 가면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잘못된 골짜기로 들어가거나 잘못된 산등성이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길이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언덕이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을 더 반길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의 길을 곧게 하시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길은 곧게 펴지고 험한 곳은 평탄해지며 모든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다가올 준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주신 것이며, 광야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 약속을 더욱 자세히 다룹니다.

요한은 모든 의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는데, 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들을 실천하고 계셨다는 점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온 것과 같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과 유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는 사탄이 아담에게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시며, 첫 번째 아담도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유혹들을 살펴보면, 그 각각의 유혹들은 우리 또한 겪는 유혹과 같은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인기 있는 길을 택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보기 좋은 일을 하도록, 교만하고 자기만족적인 일을 하도록 부추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기 보이는 돌멩이들로 빵을 만들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빵을 만들었죠.

그것은 모세의 경험을 되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모든 백성에게 빵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돌들로 빵을 만드십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곳은 분명히 매우 신성한 장소였을 것이고, 그가 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화려한 권력 과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가 내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왕국을 주겠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유혹자에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충분함을 강조하시면서 신명기를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 토라가 반복해서 제시된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받았고, 그리스도 또한 광야에서 혹독한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두 경우는 동일하지만, 장소적인 차이점에 주목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에돔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도 충족되고, 물도 풍부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물에 대해 배웁니다. 나무들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단 한 그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 계십니다.

그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지만, 홀로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이 죄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대조를 이루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족장들, 이스라엘, 다윗, 광야의 공동체,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관한 예언적 약속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이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이 바로잡힐 종말을 향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광야는 비옥한 들판이 되고 비옥한 들판은 숲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숲, 많은 나무, 많은 물. 그리고 나서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만이 아닙니다. 정의가 광야에 거 하고 의가 비옥한 밭에 머물며 의의 일은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서 살 것이다. 35장, 광야와 사막이 기뻐할 것이다. 메마른 땅 아라바가 즐거워하며 꽃을 피울 것이다.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놀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쁨으로 소리치며 ,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아라바 산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

알겠지요?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의 회오리바람 대신 이제 아라바 사막에는 강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적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엮어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완벽한 건축, 의로움, 치유, 풍요로운 농업, 그리고 사회적 조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에덴동산과 같은 환경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땅이 경작될 것이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땅은 황량하기만 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황폐했던 땅이 에덴동산처럼 되었 도다. 그리고 황폐하고 파괴되었던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사람이 살게 되었도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안전하다. 그러면 너희 주위에 남은 이방 민족 들은 나 여호와가 황폐한 곳을 재건하고 황폐한 곳에 새싹을 심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의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실 때를 가리키는 세 가지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아마 생략하셔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종종 쓰라린 마음과 믿음 부족, 반역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씨름하는 그런 악마들과 같은 내면의 악마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생각할 때, 단순히 지리적, 지형적인 의미만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적인 광야, 그곳에 있는 생명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성소는 우리의 영혼을 정련하고 정화하며,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우리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진정으로 지키게 하고,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나와 너,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황무지를 떠나, 정의와 샬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세상에는 황폐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입니다.